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491편 출품

지난해 대비 23.36% 증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진행된 국제경쟁 공모에 75개국, 491편의 영화가 출품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팬데믹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98편보다 23.36%(93편) 증가한 수치다.

국제경쟁 출품 공모에 참여한 국가 또한 68개국에서 75개국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7개국 더 참여했다. 대륙별로 분류했을 때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많은 작품을 출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품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총 56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페인이 37편, 중국은 35편을 출품했고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33편, 31편을 출품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30편과 24편으로 뒤를 이었다.

형식의 다양성도 눈에 띈다. 올해는 다큐멘터리 픽션 에세이 필름과 같은 혼합 장르가 증가해 실험적 형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국제 경쟁부문 출품작은 극영화 266편(54.18%), 다큐멘터리 168편(34.22%), 애니메이션 10편(2.04%), 실험영화 30편(6.11%), 기타 17편(3.46%)으로 전년 대비 극영화 71편, 다큐멘터리 10편, 애니메이션 8편이 증가했으며 실험영화는 전년도와 동일한 편수인 30편이 출품됐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이번 공모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독립·예술영화 제작에 대한 전 세계 영화인들의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전주국제영화제가 여전히 전 세계 독립·예술영화인에게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영화제를 찾는 관객 여러분께 좋은 작품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전북 전주시 영희거리 일대에서 230여 편 규모 500회차 상영으로 열릴 예정이다. /뉴스

국립민속국악원, 사업계획 발표

일상서 누리는 공연문화 환경 · 지속 가능한 국악생태계 조성 등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지난 21일, 남원을 비롯한 전라남·북도지역 등으로 활동 외연을 넓혀 한층 풍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 아래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

주요 사업 내용은 ▲기관 특성화전략에 따른 작품제작 및 역량강화 ▲일상에서 누리는 공연문화 환경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생 및 국악 콘텐츠 신산업 확산 ▲지속 가능한 국악생태계 조성 및 저변확대 ▲민속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연구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민속국악원 청사도 시설현대화 공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28억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국립민속국악원 지하 주차장 건립 및 공연장 로비확장 등이 진행, 공사기간 남원 소재 공연장과 전라남·북도 유관기관, 수도권 지역 등에서 공연을

추진하는 등 활동빈도를 넓혀 다양한 관객들에게 국악의 멋과 흥을 알릴 예정이다.

왕기석 원장은 "지역에서 국악이 생활 속에서 향유될 수 있도록 다가가고, 더 나아가 국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옥천골 미술관 주민 미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화 · 아동미술 · 청소년만화반 모집

순창군은 지난 21일 2022년 옥천골 미술관 주민 미술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옥천골 미술관 주민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에게 미술 소질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미술 교육은 한국화반, 아동미술반, 청소년만화반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한국화반은 19세 이상 군민, 아동미술반은 초등학교생, 청소년만화반은 중·고등학교생으로 각 프로그램 당 20명을 모집한다. 수업 중 발생하는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옥천골미술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옥천골 미술관(063-650-1638)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옥천골 미술관 전경.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멘토·멘티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31일까지 이메일 제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오는 31일까지 2022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사업에 함께할 멘토봉사단과 멘티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멘토가 멘티를 찾아가 삶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봉사단은 50대 이상의 인문적 소양을 갖춘 중장년으로 40명 내외로 모집할 계획이다.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배려의 인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을 멘티 기관에 방문해 진행하게 된다.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취지를 전제로 멘토의 경

험과 재능, 지혜를 활용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된다.

멘티 기관은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에 소재를 두고 그룹 당 5명 내외의 인원으로 사업기간 내 멘토링 운영이 가능한 시간·공간을 확보한 내외의 그룹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 아동센터, 자유학기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청소년복지센터, 대학생 군부대, 직장 동호회 등 호남권역 소재의 기관 및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인문 가치를 나누고 싶은 소규모 그룹이 모집 대상이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31일까지 이메일(jct-life@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화사업팀(063-230-7457, 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고창 아름다움 담은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입상작품 전시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창지회(회장 박종은)가 오는 28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풍격있는 고창군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입상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촬영대회는 고창의 역사, 문화, 생활상 등 고창의 모든 것을 소재로 진행돼 전국 사진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 속에 600여점 이상의 우수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심사위원 간 논의 끝에 정기철의 '농악놀이'가 금상으로 선정됐다. 정기철의 '농악놀이'를 포함해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장려 5점 등 총 131점의 작품이 전시돼 고창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예술회관 상반기 수시대관 이메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2년 전북예술회관 상반기 수시대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수시대관 공고는 2월 18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3일~18일까지다.

코로나19 상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대관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수시대관은 지난 상반기 정기대관 잔여 전시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시실에는 기스라(95평), 기스라(42평), 차오름(67평), 차오름(41평), 미리내(66평) 등 총 5개 전시실이 있다.

한편, 재단은 상반기 정기대관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예술인들에게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위축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주소지(주민등록상)를 둔 작가 및 단체에게 대관 기본료 50%를 감면한다. /장은성기자

2022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의 행복과 꿈을 실현시키는
익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